

📢 목소리

각 질문에 대하여 해당되는 번호에 V표를 해주세요.

1. <나눔+>의 글씨체나 글씨 크기가 읽기 편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2. <나눔+>의 표지가 마음에 든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3. <나눔+>의 발행주기(현재 분기별 계간 발행)가 적절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4. 이번 호 <나눔+>에서 가장 유익했던 코너는?
 (.....)
5. <나눔+>에서 꼭 다뤄줬으면 하는 아이템 및 기타 의견을 주신다면?
 (.....)
6. 귀하의 연령은?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 해당 설문은 <나눔+>을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함입니다. 보내주신 좋은 의견을 모아 소식지에 반영하고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려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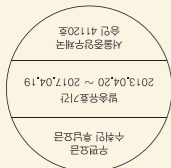
0 4 5 3 7

www.cartassoul.or.kr/bokji
Tel. 02-776-1314 Fax. 02-754-5636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층

☀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금 익내거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
—
2016 Summer
vol.367

☀
나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 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6,36)

CONTENTS



COVER STORY
도곡어린이집 교사의 기도

SPECIAL THEME

- 04 이슈**
카리타스 영성의 실천
- 사회복지 현장에서
- 08 카리타스의 여름**
좋은 이웃, 따뜻한 나눔

- 10 칼럼**
가톨릭사회복지학교 특강
대 바실리우스가 실천한 이웃사랑
- 14 성경으로 세상보기**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복음묵상글 릴레이
<성경으로 세상보기>

- 18 나눔 길라잡이**
축복미 화환
나눔의묵상회 피정안내
- 20 카리타스 가족**
- 22 카리타스 한 줄 소식**

2016 Summer <나눔> vol.367

발행일 2016년 6월 24일 발행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층
발행인 정성환 전화 02-776-1314 팩스 02-754-5636 홈페이지 www.caritasseoul.or.kr/bokji
기획·편집 교육·홍보팀 송새암 02-727-2256 디자인 디자인수다 02-3446-5202 인쇄 연합프로세스

* <나눔>는 무료로 배포되며, 인터넷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나눔>의 저작권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있습니다. Copyright@caritasseoul.all rights reserved.

Mission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합니다.

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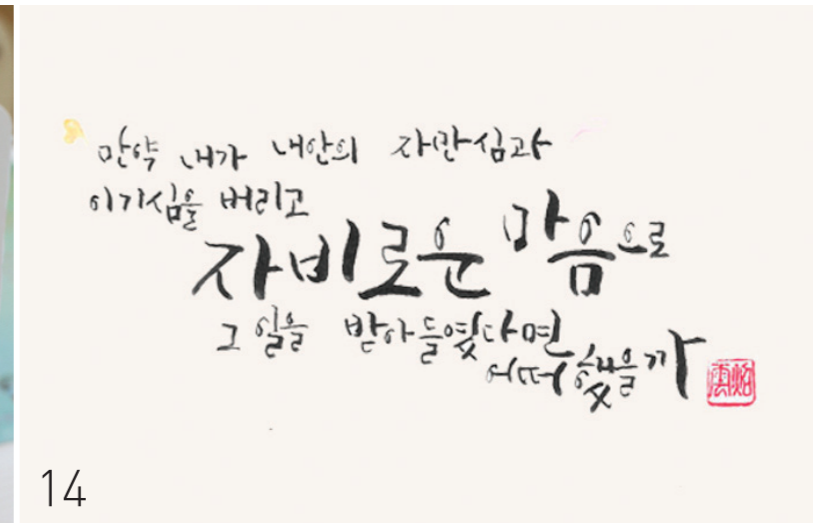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사회복지 기관
본당 중심의 지역사회 발전을 지향하는 교구 사회복지회
미래 사회복지를 선도하는 전문 사회복지 기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네트워크 기관

Caritas

사랑(愛), 애덕(愛德), 자선(慈善)이라는 뜻의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계명인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04



14

카리타스 영성의 실천 - 사회복지 현장에서

2015년 2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직영·수탁 시설장, 부장 워크숍에서 1년간의 실천사항인 “기도”와 법인 지속캠페인인 “I DO(제가 하겠습니다)”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계획하였습니다. 법인과 시설은 한 해 동안 위 두 가지 주제를 현장에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를 모범적으로 진행하였던 우수시설을 선정하고 포상하였습니다. 선정분야는 ‘2015년 실천사항 부문: 기도’와 ‘I DO캠페인 부문’으로, 선정된 곳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우수시설현판 등의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올해에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카리타스 영성의 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6년도 실천사항을 ‘교회의 가르침’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올 한해 법인과 시설은 이를 구심점 삼아 사회복지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현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I DO!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알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나눔+> 여름호 에서는 지난해 ‘법인이념 실천사항 부문’ 우수시설로 선정된 도곡어린이집을 살펴보고, 카리타스 영성에 기반한 법인이념을 현장에서는 어떻게 실천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도곡어린이집의 2016년도 주요 사업도 알려드립니다.

기관명
도곡어린이집

진행기간
2015.03~11

부문
법인이념 실천사항



도곡어린이집에서는 2015년도 법인 실천사항인 ‘기도’를 반영한 세부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소망하고 부탁한다는 의미의 ‘기도’를 매개삼아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 노력한 점이 돋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전직원이 김수환추기경 연구소의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교육을 수료하는 등 그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한 해간 적극적인 실천으로 법인의 방향성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도곡어린이집의 월별 세부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명: 기도를 통한 실천 “내 마음에 사랑의 강이 흘러요”

3~4월

- ✿ **교직원**
 - 정직하고 성실한 삶의 본보기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 하루 5분 스스로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과 대면하기
 - 사랑의 나무 만들기
 - 사랑의 십계명
- ✿ **교직원 중 가톨릭 신자일 경우**
 - 금식, 단식 실천하기
 - 십자가의길 봉헌하기
 - 부활삼중기도 바치기

5월

- ✿ **교직원**
 -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리기
 - 마음을 담아 부모님, 동료에게 편지쓰기
 - 동료, 가족들에게 꽃 한송이를 선물하며 “사랑합니다”메시지 전달하기
 - 가정을 위한 기도문 만들어보기
- ✿ **교직원 중 가톨릭 신자일 경우**
 - 매일 묵주기도 5단 바치기
 - 성모성월기도문 바치기
 - 성모의밤 참석하기

6월

- ✿ **교직원**
 - 내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 가치에 이름 붙여주기
 - 매일 주위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 되돌아보기
 - 인간존중을 실천하는 나만의 방식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하고 실천하기
 - 인간존중의 십계명 만들어보기
- ✿ **교직원 중 가톨릭 신자일 경우**
 - 예수성심성월기도문 바치기
 - 주일미사 빠지지 않기
 - 사제를 위한 기도 바치기

7~8월

- ✿ **교직원**
 - 김수환 추기경의 삶과 사상에 대한 저서나 동영상 본 후 느낌 나누기
 - 내적 평화를 위한 행복의 관점을 느껴보고 실천하기
 - 사랑의 삼계명 작성하여 실천하기
- ✿ **교직원 중 가톨릭 신자일 경우**
 - 교회봉사활동 참여하기

9월

- ✿ **교직원**
 - 일상에서 생태적 삶 실천하기
 - 자연을 지키고 생명을 돌보는 생태적 동반자 되어보기
 - 지구사랑 실천운동 정하여 실천 양심달력 만들어보기
 - 생명존중기도문 만들기
- ✿ **교직원 중 가톨릭 신자일 경우**
 - 한국 순교성인들을 기억하고 생태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성지순례 체험하기

10~11월

- ✿ **교직원**
 - 우리 주변에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노력(작은 것부터 실천, 점차적 확산)
 -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감상 후 내용 나누기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디어, 도움주기)
 - 평화를 위한 기도문 만들기
- ✿ **교직원 중 가톨릭 신자일 경우**
 - 묵주기도 생활화 하기
 - 위령을 위한 기도 및 연도 바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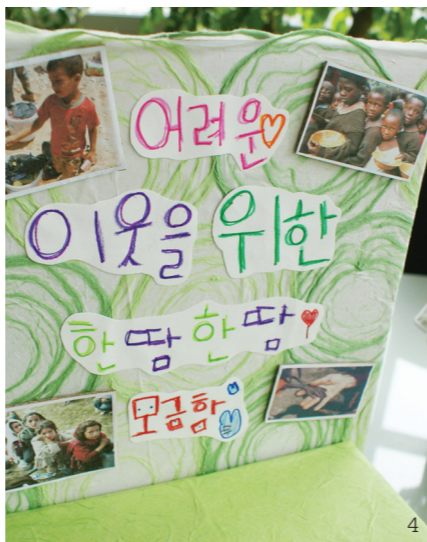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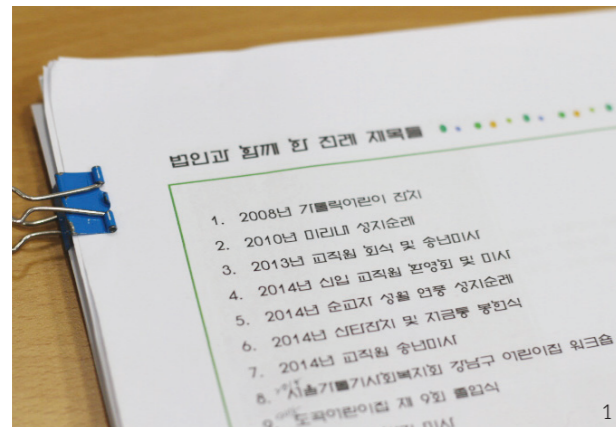
12월

- ✿ **교직원**
 - 마더 데레사 성녀, 고 이태석 신부님 영성을 되새겨보고 모듬을 구성하여 사랑, 나눔, 봉사 실천하기

* 월별 실천사항: 전체 교직원 또는 교직원 중 가톨릭신자일 경우 2가지로 구성

도곡어린이집은 월별 실천사항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이에 따라 실천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실천한 내용을 사진이나 기도문 등으로 남겨 원내에 게시하고 공유하였습니다. 만들어진 기도문 등은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 할 때, 현장학습 시 등 실제로 사용하여 생활밀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도곡어린이집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와 함께 하

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법인 정체성과의 일치성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올해 도곡어린이집은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한 주기를 살아내는 동안 카리타스를 모범적으로 보여준 도곡어린이집은 2016년에도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지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실행 중에 있습니다.



1 2016년도에도 도곡어린이집은 법인이념을 반영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원아들이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또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프로그램 '한땀한땀'.
 3, 4 '한땀한땀' 프로그램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도곡 교사의 기도

매일 아침 기대와 설레임을 안고 시작하는 하루
 밝게 웃는 미소로 인사하며
 그 날 하루가 아이의 미소처럼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힘들어할 때
 교사를 믿고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한 교사가 되게 하소서.

작은 씨앗들이 빠르게 자라도록,
 따뜻한 말, 따뜻한 눈빛,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소서.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뿌연 마음을 싹싹 닦고
 화사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언제나 아이들과 함께 건강한 하루를 보내며
 교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게 하소서.

아이들에게 거울이 되어
 희망과 꿈을 심어 주고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어 소통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지켜주는
 엄마처럼 포근한 교사가 되게 하소서.

교사들의 실천사항 활동 평가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시간들을 실천사항을 한 주 동안 지키며 의미있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명언들을 마음에 새기며 좋은 마음으로 아침에 아이들을 맞이하고, 더 웃어주고, 더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동료교사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무적인 관계에서 인간적인 관계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업무가 가중될 것 같은 느낌에 일처럼 느껴졌던 실천사항들이지만, 자세히 보니 내가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의식하며 실천하다보니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응원하면서 만나는 아이들과의 친숙한 말이지만 사랑을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실천사항을 함께 하며 아이들을 안아주기, 동료들 도와주기, 상대방의 말에 귀기울이기 등 배려와 존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기에 미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여 학기에는 더 나아진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좋은 이웃, 따뜻한 나눔

여러분이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세요

<좋은 이웃, 따뜻한 나눔>은 서울대교구 차원에서 매달 한 번씩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교우를 서울대교구 주보에 소개하고, 교우들의 성금을 모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름호에서는 3, 5월에 소개된 사연을 축약하여 소개합니다. 전체 사연글 및 사연에 대한 후기는 게재 3개월 후 서울대교구 홍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c.catholic.or.kr)

소외되고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들이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세요.



3월 이웃

솔바람복지센터



최근 가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어서 할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버림을 받은 아이의 소식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며 슬퍼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여력도 없이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갑니다. 무관심과 오로지 나, 내 가족만을 생각하고 주위를 살피지 못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가정폭력에 방치된 아동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의 가해자 자신도 과거에 폭력에 노출되어 왔던 피해자임을 인정하고, 빈곤으로 오는 우울과 좌절 문제 등을 인지하여 각 지역 사회 안에서의 치료와 상담을 통해 극복해야 합니다.

이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와 함께 하고 있는 솔바람복지센터에서는 가정 내 양육자의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홀로 아동과 한부모가족에게 정서적 지원 사업을 통하여 가족의 순기능을 회복하고, 소외된 이웃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또 기관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개별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은 한정적입니다. 또한 후원금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큼니다. 심리치료와 상담을 통해 더 많은 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후원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합니다.

지역 안에서의 관심과 돌봄으로 소외된 아동들이 주님의 보호 아래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실천해 주세요.

5월 이웃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동작구에 거주하는 이재령(가명, 69세) 형제님은 사업실패로 가족이 해체된 채 살아오던 중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으로 우울증이 왔습니다. 형제님의 월수입은 37만원으로 제때 병원을 가지 못해 심해진 당뇨와 피부병으로 일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플 때도 그렇지만 어버이날이면 아들이 더 생각나. 지금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사는게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 이제는 그만 다 내려놓고 아들 따라 가고 싶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동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요보호 어르신을 대상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30명의 어르신이 재가노인복지사업 대상자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2016년 3월 기준). 이 중 전체 어르신의 90.8%에 해당하는 118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으로 대부분이 열악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30명의 생활관리사들이 동작구 내 810명의 독거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앞둔 현재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이 노인입니다. 이들 중 경제적 빈곤과 고립된 환경에서의 고독감과 외로움으로 고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노인복지에 대한 후원금 모금은 쉽지 않습니다. 노인들 또한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과 같이 관심과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은 미래의 나의 모습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노인들께 많은 관심과 정성 부탁드립니다.

가톨릭사회복지학교 특강 대 바실리우스가 실천한 이웃사랑

박승찬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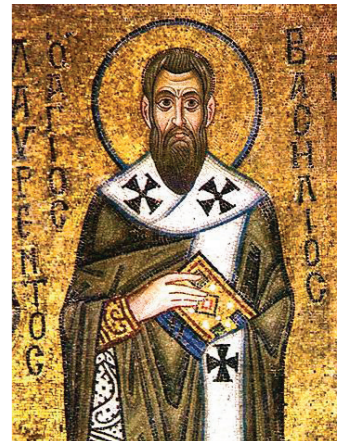
1

우리는 경쟁의 연속인 질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삶의 여정 중 때로는 예측 못한 큰 사고와 맞닥뜨릴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깨져버리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또 몇몇은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 과연 고통은 큰 사고를 겪는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 평범한 사람들 또한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와중, 혹은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라도 번아웃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우리들은 어떤가? 사회복지의 굉장한 의미 있는 일이지만 끊임없이 나의 육체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대상자들과 나눠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스스로 소진되는 부분이 크다. 또한, 현실과 내가 가지고 있던 이상 사이가 차이 많이 나면서 절망하게 되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고통에 찬 상태가 될 것이다. 이처럼 고통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고통을 부끄럽게 여겨 감추고 도망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취나 무통분만, 알코올이나 마약으로 고통을 직면하지 않고 없애버리는 분위기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고통의 의미를 찾는 작업은 현대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한 작업이다. 고통은 체험 자체로 보면 악이지만, 때로는 고통이 도움이 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의지와 이성의 올바른 바름에서 오는 고통이 그것이며, 이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자신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회피하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실천하는 사회복지의 더욱 의미 있어 질 것이다. 니체는 “고통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는 것이 바로 저주”라고 말했다. 고통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고통보다 더 큰 저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 무관심, 악의로 인해 빚어지는 고통은 지양될 수 있고 지양되어야만 한다.

2

바실리우스의 성장기

대 바실리우스(329-379년)는 1700년도 당시 주교관 중심으로 사회복지 공동체를 만들었던 성인이다. 그는 카파도키아 지역에 살던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친족 중에는 신앙을 증거한 이들이 많았고, 할머니 ‘마크리나’는 신앙심이 깊고 매우 똑똑했다. 그녀는 여성의 몸으로 ‘기적자 그레고리우스’라는 뛰어난 스승을 찾아가 신학적인 내용을 배우기도 했다. 박해시대 때에는 피난을 가야 했던 어려운 상황에서도, 손주들을 모아 놓고 교리 공부를 시켰다. 바실리우스의 어머니와 아버지 또한 깊은 신앙심을 보이며, 10남매를 낳았다. 그 중에 장남이 바로 바실리우스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무엇이든 잘하고 인품도 훌륭했다. 그런 그의 위로 할머니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누나 ‘마크리나’가 있었다. 그녀 또한 대단한 카리스마와 지혜를 가지고 있었으며, 바실리우스가 잘난체라도 하면 “너는 중요하게 빠져있어, 너는 겸손함을 몰라.”라고 야단을 칠 정도였다. 바실리우스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지려고 하면 마크리나가 잔 소리를 하며 바로 잡았다. 그러면서도 마크리나는 동생의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보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어려운 형편에서도 바실리우스를 유학보냈다. 유학길에 오른 바실리우스는 아테네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같은 고향 출신의 친구인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를 만나 깊은 우애를 나누게 된다. 이들은 음식과 공부를 나누고, 나아가 형제적인 공동체 체험 까지도 하게 되었다. 바실리우스와 그레고리우스는 1, 2등을 다투는 사이였지만, 서로 싫어하는 커녕 좋은 친구였다. 둘 중에서 더 뛰어난 사람은 바실리우스였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바실리우스의 놀라운 지적 능력에 대해서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도, 서로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마음에 들어 했고, 발전적인 관계로 지냈다. 수년이 지나 바실리우스가 먼저 공부를 끝내고 카파도키아로 돌아오게 되었다. 한편 그레고리우스는 8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하면서 “우리 두 사람 모두 머릿속에 지식을 가득 안고 카파도키아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했다.



3

수도 공동체를 창설한 바실리우스

바실리우스가 이렇게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지식과 신앙이 모두 충만해져 있었다. 더욱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빼앗겼던 재산들을 돌려받았기에 바실리우스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많이 좋아져 있었다. 바실리우스는 이 재산으로 뭔가 큰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바실리우스가 유학중이던 사이 그의 누이 막크리나는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은수자를 만나서 큰 영향을 받은 상태였다. 막크리나는 바실리우스에게 제안을 했다. “우리 이제부터 수도공동체를 만들자. 우리 집안에 있는 어머니, 나, 여종들은 여성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너는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동생, 친구 등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안니시라는 곳에 우리 수도 공동체를 만들어 보는 게 어때?” 이에 바실리우스는 자신이 공부하면서 만났던 그리스도교적인 이상을 그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누나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바실리우스는 지나치게 금욕적인 수도생활 만이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존경스럽지만 모든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수도 규칙을 만들어야겠다.” 결국 바실리우스는 온전한 수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수도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연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해 여행을 떠나게 된다. 이 여행을 통해 바실리우스는 그리스도교에서 수도생활은 그리스도에 대한 추종의 한 형태이며, 정결, 청빈, 순명의 세 가지 복음적 권고를 준수하면서 하느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설 및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의 감도를 받아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시작되는 봉헌생활이라는 개념을 정립한다. 치우침이 없고 신중했던 바실리우스는 이미 동방의 여기 저기에 꽃피고 있던 그리스도교 수행자 단체와 접촉해보고 싶었기에 시리아로, 그리고 이집트로 가 수도승 세계를 돌아보는 일종의 ‘견학여행’ 중 이를 배우고 받아들인



다. 또한, 수도공동체 의미에 가난한 이들에 대한 봉사과 헌신을 더했다. 이렇게 뛰어난 공동체를 이룬 바실리우스와 그의 수도 공동체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졌다. 그리하여 바실리우스는 주교도 되기 전에 위대한 사람에게 붙이는 ‘대Magnus’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4

이웃에게 봉사하는 수도공동체

이렇듯 벌써 어린 시절부터 바실리우스와 그 누이의 마음 속에는 고독한 수행자의 매력적인 모습과, 후에 순교자에 비견되는 신앙의 증거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 시점에서, 바실리우스가 통합된 기질과 집요한 성격과 함께, 완성에 대한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덧붙여 말할 필요가 있다. “기질 상 나는 완전하지 못한 것은 다 싫어한다.” “단 하나의 계명에 대해서라 할지라도 주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직무에 태만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이 전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거의 도달한 것은 사실 조금도 도달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바실리우스가 보좌주교 시절, 성 에우프시키오 마르튀리온 근처에 세운 수도공동체가 바로 ‘바실리아테’이다. 이는 무료진료를 위한 도시로 평신도들은 행려자, 가난한 이, 다른 여행자들을 보살피고 수도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일정시간 손노동도 하였다.

이처럼 특정 부류의 그리스도인들도 과소평가했던 육체노동은 바실리우스의 수도공동체에서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였다. 노동은 단지 공동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분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위한 형제적 사랑의 목적으로 실천되었다. 또한, 바실리우스는 수도생활에 있어 엄격함을 추구했는데, 이는 수도규칙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 형제적 생활의 친교 등을 추구함을 말한다. 유학시절 그레고리우스의 우정을 경험한 것에서 비롯하여 인간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동물이며, 개인주의적인 고립은 인간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바실리우스는 미사 중 남는 식량을 자신의 창고에 두면서 밖에서 아사하는 사람들을 방관한다면 살인자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나눔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행할 수 없으며, 성체성사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히 다른 이들을 위해 내어줄 때에만 실천이 가능하다고 전례의 중요성 또한 역설한다. 바실리우스의 수도규칙서는 베네딕도 규칙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베네딕도 규칙서의 영성은 기도하고 일하라! 이다)... (2편에 계속) ✿

* 기을호에서 2편(이웃에게 봉사하는 수도공동체, 바실리우스의 조력자들)으로 이어집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복음묵상글 릴레이

〈성경으로 세상보기〉

지난 봄호에 이어, 이번 여름호에서는
3~5월에 걸쳐 게재된
<성경으로 세상보기>원고의 핵심문구를 발췌하여
캘리그라피로 표현한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복음에 드러난 카리타스를 통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묵상글 열람을 원하시면
본회 홈페이지(caritasseoul.or.kr/bokji)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본회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caritasseoul)를 통해서도 연재합니다.

만약 내가 내안의 자만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일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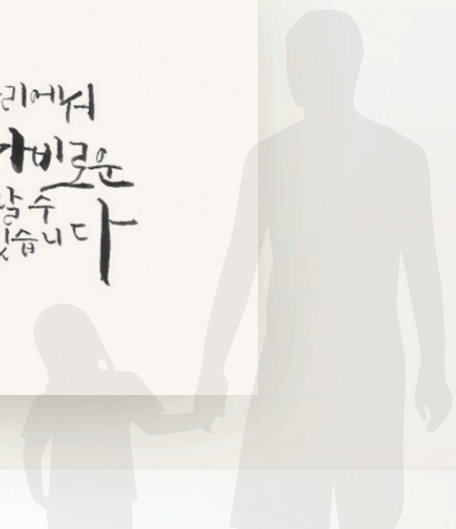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위수경 요세피나

자신의 사랑과
성명을 버려도
필요한 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부족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최은영 사비나

어둠과 불행해 보이는 현실 너머서는
우리에게 삶의 보람이 많은 자리자리에서
우리는
주님 하느님의 자비로운
손길과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성가정입양원 Sr.남혜경



부활하신 예수님
 깨나리처럼 노오란 기쁨주시고
 잔달리처럼 분홍꽃 희망 주소서
 기린하리 같은 목련의 순수와
 붉은 동백의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 빈민사목위원회 Fr.임용환 엘리야

죄의 용서를 위한 화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장소영 올리안나 담당관

하느님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나뉘다그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말씀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이춘식 대건안드레아

당신은 같은 하느님이시지만
 가난하고 약하지만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어
 위고와 기쁨을 선사하실 때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때 하느님 자녀로써 품위를 지키며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가도록 힘을 주실 때
 각각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 카프성모병원 김한석 토마스 신부님

예수님께서
 평화의 첫번째 조건은
 여타의 사회적인 조건이 아닌
 바로 '인간 존중'이라는 조건입니다

- 노동사목위원회 장경민 시메온 신부님

성체성사의 신비를 통해 우리와 성체를
 신과 과를 내어주는 이룩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충성을 불망아
 우리도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성체와의
 일치에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김상미 미카엘라 담당관

축복미 화환

신랑 신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축복미 화환에 이웃사랑을 담아 보내주세요!
축복미 화환을 신청하시면 혼배성당으로 보내드립니다.



- 축복미를 신청하시면 쌀과 축하리분을 혼배성당으로 보내드립니다.
- 혼배 2일 전까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축복미는 혼배 후에 지역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 축복미를 구매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776-8810)

* **축복미 참여본당:** 가회동, 구파발, 방배동, 여의도, 중림동 약현



나눔의묵상회 피정안내

- 일정 : 2016년 9월 2일(금) ~ 4일(일)
- 장소 : 성 베네딕도 서울수도원 피정의집(장충동)
- 문의 : 나눔의묵상회
Tel. 02-727-2547 | Fax. 02-2263-0853
cafe.daum.net/sharIng

1. 나눔의묵상회 취지

1985년 6월 김수환 추기경의 “나눔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보라.”는 말씀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담당신부와 관계 전문가들이 연구 및 숙고하여 1986.2.21~2.23 제1차 나눔의묵상회 피정이 진행되었다.

2. 나눔의묵상회 목적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복음정신에 입각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나눔의묵상회의 근본정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

4. 나눔의묵상회 활동지침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서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5. 나눔의묵상회 사명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이들 육체적 물질적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평신도 사도직 수행에 충실할 것을 사명으로 한다.



